

종단소식

조계종 은해사 박물관 상량식

영천 은해사(주지 법타)는 6월 30일 성보박물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96년 12월 착공한 성보박물관은 건물 1백68평에 전면 9칸 측면 5칸으로 된 '가자'형 단층건물로 98년 12월 완공예정이며 은해사 본말사에 소장중인 1천여점의 문화재를 보관 전시된다.

금산사 사찰순회 법회

김재 금산사(주지 도영)가 전법의 해를 맞아 7월 중순부터 관내 7개 지역에서 사찰순회 포교법회를 봉행한다. 금산사는 6월 21일 사암승가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고 각 말사에 일정 및 세부계획서 작성 등에 대한 순회 포교지침을 시달렸다.

관음사 불려스님 59주기

제주 관음사(주지 중원)는 2일 대웅전에서 관음사 증후조 안불려스님 59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이날 추모재에는 본말사 스님들을 비롯 신형단체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미고종 증무원장 남파스님 취임

전북교구지방증무원장은 6월 28일 전북증무원사에서 인곡 증무원장스님 등 종단간부들과 신도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대 증무원장 남파스님 취임식을 거행했다.

통일기원 수록영산법회

대구경북교구증무원(원장 일우)은 6월 27일 오전 11시 영주시 광은유원지에서 남북통일기원 수록영산대법회를 봉행했다. 해마다 열리고 있는 이번 수록영산대법회에는 종단 간부를 비롯 대구경북지역 불자 1천여 명이 동참했다.

알림

본지 20면 증면과 함께 각 종단의 주요 공지사항 행사 등을 알리는 '종단소식'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각 종단 증무원 및 지방 증무원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게재해 드립니다.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

성수대교 회생자 천혼제

한국불교청년회(회장 도각스님)와 한국여성불자봉사회(총재 주양자)가 공동 주최한 성수대교안전운행 기원 및 회생자 천혼대제가 인곡 총무원장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28일 성수대교 강북진입로 입구에서 봉행했다.

3일 성수대교 개통을 앞두고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벽파스님(태고종 불교문화예술원장)의 기원문, 주양자 총재의 대회사 낭독에 이어 영산재 보존회의 천혼대제가 펼쳐졌다.

진대종 해장사 해외성지순례

진해 해장사(주지 진덕)는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간 신도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만의 불광사, 용산사, 장항사와 홍콩 유적지 등을 둘러보는 해외성지순례를 실시했다.

구인사서 하계승려교육

총무원(원장 문덕)은 11일부터 13일까지 2박3일간 총본산 구인사서 제34회 하계승려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3백여 말사스님들이 참가하게 될 이번 승려교육에서는 종회의장 덕산스님의 본산과 말사의 주연에 대한 강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 진광사 법당기공식

강원 평창군 진광사(주지 감성)는 6월 28일 신도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법당 기공식을 봉행했다. 감성스님은 인사말에서 "불교 불모지나 다름없는 강원도에 불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진각종 통리원 증비생 연수교육

통리원(원장 성초)이 주최한 진가 51년도 증비생 연수가 6월 23일부터 총인원사 시작돼 7월 13일까지 3주간 열린다. 위촉대 증비생 8명을 대상으로 증비생의 자질향상과 고도의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신심'을 주제로 티벳, 일본어 등 교양강좌와 교리강좌, 교학수업, 목야박물관 견학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북경에 韓人 목탁소리

외국인들의 신앙활동이 금지돼 온 중국에서 공식적인 법회가 처음으로 이뤄지는 등 한인불자들이 활발한 신앙활동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한 중국불교협회의 초청으로 6월 17일 중국을 방문한 월주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한인불자회 법회에 참석, 매달 1천불씩 1년간 1만2천불을 지원키로 해 앞으로 중국교회가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한인불자들의 법회가 시작된 것은 95년부터. 외국인들의 신앙활동이 엄격히 금지돼 있어 한인불자들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몰래 법회를 개최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인불자회 회원들은 9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를 한국인 식당에서 봉행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연행되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96년 9월 북경 광제사에서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법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는 외국인들에게 처음으로 불교활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 밖에도 한인불자회는 매주 1회 가족법회를 비롯 교리

공부, 수련회, 답사 등 활발한 신앙활동을 펼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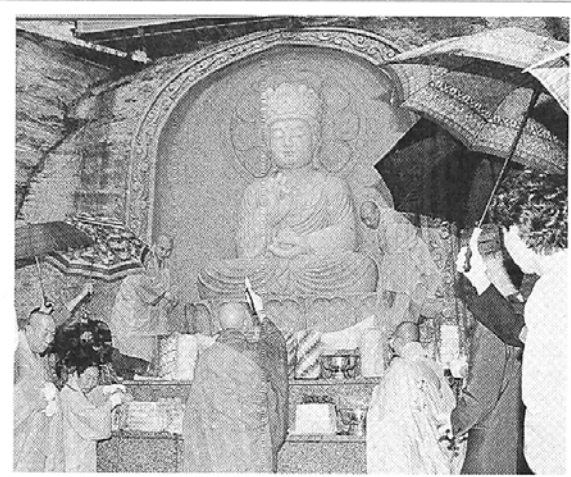
이처럼 북경 한인불자회의 활발한 신앙활동에도 불구하고 산적한 어려움이 많다. 법회장은 마련했지만 불자회를 유지할 연락사무소가 없고 재정이 열악해 신앙활동에 큰 제약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중국에는 유학생 8천여명과 주재원 가족 5백여

외국인 최초 불교활동 '공식법회' 열여 월주스님 참석 '한인불자회' 지원 약속

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불자는 3백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년째 북경대학에서 유학중인 월주스님은 "한인불자들은 타국땅에서의 어려움을 불심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2억 중국인의 마음속에 한국불교를 심는다는 자부심으로 신앙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중근 기자



관음종 본산 묘각사 석조관음상 점안 관음종(총무원장 총파)은 6월 26일 총본산 묘각사에서 석조관음상 점안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대천스님과 총파 총무원장을 비롯해 보문종 해일 총무원장, 일본 진언종 대표 후카자와스님, 박윤홍 대원회 이사장 김용직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4백여명이 참석했다.

중국 불자인구 1억여명 개방사찰 1만4천여곳

중국의 12억 인구 가운데 불자는 약 1억명이며 13만 여명의 스님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무원 산하 종교사무국은 6월 16일 중국불교협회 초청으로 방문한 한국종단협의회 대표단에게

중국 종교사무국은 "현재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사찰 수는 1만4천여곳이 있다"며 "상해를 비롯한 개방도시에는 불교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슬람교가 1천8백만명, 기독교 1천만명, 가톨릭 4백여만명의 종교인구가 있다고 종교사무국을 밝혔다.



◇네발 보광선원 조감도

경스님은 보광선원의 핵심인 삼천불전 기공식을 위해 지난 6월 26일 네발로 출국했다. 이로써 네발에는 대성석가(주지 법신)와 함께 두개의 한국사찰이 들어서게 됐다.

석가족마을에 한국사찰 세운다

룸비니 '보광선원' 99년 완공...수행승 기도처

부처님 탄생지 네발 룸비니 관문 지역에 위치한 석가족 마을 포카타에 한국사찰이 선다.

3천여명의 대지 위에 연건평 5백평 4층건물로 조계종 보광선원(주지 영경·부산 보광선원 주지)이 건립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기초착공에 들어가 99년 완공예정인 보광선원은 한국과 티벳은 물론 세계 각국의 수행승들의 기도처가 될 뿐만 아니라 석가족 사람들의 새로운 마음의 고향이 될 전망이다. 또한 히말라야를 찾는 관광객의 90% 이상이 찾는 곳인만큼 네발을 찾는

일반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 민간외교에도 일익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이곳에는 지난해 11월 개원한 2층규모의 요사채에 네발 최고의 명문 카투만두대학 법학과 출신의 엘리트들이 주지 영경스님의 문하에서 불사에 동참하고 있다. "석가족 마을에 부처님의 혜명(慧明)을 다시 밝히겠다"는 원력으로 4년여의 답사와 준비과정을 거쳐 불사를 일으키고 있는 경스님은 4년전 송광사선원에서 열경중선물을 받고 히말라야로 답사를 떠나 도량을 세울 땅을 찾았던것. 영

"승가대 학제보완 절실"

학과 증설·교수임용 기준마련해야

중양승가대학이 한국대학경영연구소(소장 황석하)에 의뢰해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학교 경영진단 및 평가결과 학교운영 전반을 불교수행기관으로서의 특수성을 강조하되, 4년제 정규대학의 성격에 맞도록 학문성, 일반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에 따라 중양승가대는 평가보고서가 나온 뒤 학교발전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고서 분석 및 타대학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발전계획 수립 등의 사업계획을 98년 2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보고서가 가장 비중을 두고 있는 교수영역에서는 △교수확보 및 채용의 객관적 기준 마련 △시강사 의존도를 낮추고 전임교수의 수업부담 강화조정으로 이에 따른 전임교수의 결직(사출연명 등)제한 등을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현재 불교학과, 사회복지학과 2개학과로는 불교특성화대학으로 발전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60명 정원의 현 2개 학과를 30명 정원의 4개과로 확장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청주佛放 한때 대피소동

市 '건물붕괴위험' 통지...진단결과 '안전'

불교청주방승(지사장 각현스님)은 개국 무덤에만인 6월 23일 입주해 있는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청주시의 대피명령으로 긴급진단을 받아오는 등 한때 해프닝이 벌어졌다.

6월 23일 대피명령을 받은 불교청주방승은 함께 입주해 있는 한지 측이 이를반박한 6월 25일 붕괴위험이 없다는 건물안전진단결과를 밝히자, 이를 청주시에 통보하고 현재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

불교청주방승이 입주해 있는 청정매일사옥의 붕괴설은 이 건

물 옆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깊이 25m로 파놓은 채 공사가 중단된 뉴월드코아 공사현장 때문에 나뭇가지 시작했다. 청정매일사옥은 지하2층이고 옆에 들어설 백화점 건물은 지하 5층이라 장마가 계속되면 지반침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청주시의 설명 불교청주방승 지사장 각현스님은 "임시로 주요장비만이라도 옮겨 놓을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며 "대피명령은 청주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뿐, 방승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찰내 서점점 찾집 백양사 다연원 열여

백양사(주지 지선)는 6월 20일 전통사찰의 숨결을 느끼고 포교공간의 확보를 위한 서점점 전통 찾집 다연원을 개원했다. (사진) 다연원은 5칸 맞배지붕의 목조 한식건물로 생계부 연못과 조화를 이루고 있어 관광객과 내방객들이 사찰의 역사와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이다.



특히 실내에는 추사 김정희의 만암회화, 서용석의 선필, 지선스님의 달마도, 중국 16나한 참선도 수석 50여점등이 전시되며 지역특산차와 불교서적을 판매하고 있다.

마음 절실해야 불이 불어

나무를 비벼서 불을 얻고자 함대 제대로 역이 나기도 전에 운지르기를 그만 둔다면 어떻게 불을 얻을수 있겠는가. 절실한 데서 불이 나오는 것이니 불이 불올때까지 정진해야 한다.

철진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정신 육체를 잃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 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세산제 복용 : 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 : 염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 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 (美 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선관단식(禪觀斷食)가이드북을 우송해 드립니다.

체험사례

"본인은 78세의 수의사인데,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사일초파일날 용님선원에 입소를 하였습니다. 비타민 C가 풍부한 감잎차와 미네랄이 풍부한 산야초효소 등을 섭취하면서 커피관장을 한 결과 몸속의 노폐물이 피부 밖으로 모두 분출되고, 숙변이 2회 대량배출되어 현재는 피부와 머리카락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남은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어, 오늘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퇴소를 합니다. 1997. 6. 1. 이 승호 합장 (경남 창원시 남양동 동성 APT 5동 1203호, Tel. 0551-62-4475)



수련장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 내 : (0593)34-1115~6, 012-598-1015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雲藏)法師의 생필(眞本)

반야심경

금강경, 법구, 다라니, 각종 불서, 병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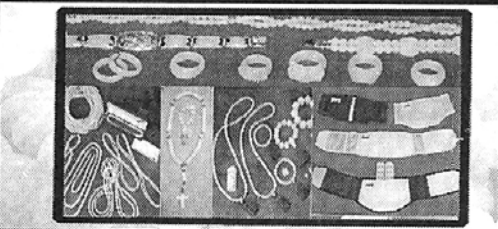
불자님의 가정을 지켜드리는 護身佛經 智慧의 佛光 般若心經이 있는 곳에는 事業은 반드시 繁昌하고 모든 災殃이 없어진다. 가정이 和睦하고 子女教育은 반드시 成功한다. ◆ 事業실제 불행한사건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난치병, 疾病에서 벗어나고 싶은분 ◆ 神祕의 般若心經을 수지독송하면은 부처님의 神通한 영력이 있습니다.

전국 佛子가정에 1백 보 ● 선착순 한정본(품) ● 주문 신청방법 시합니다(단체주문은 사절)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 모시분에 속지 마세요. 국민은행 042-21-0582-499 조정순

- 작가약력
- 중화민국 문화대학 국제서법학 전과정 수료
- 서울미술대학장 수장
- 중화민국 서법교육위원회 국립공공박물관에서 창작미술 대상수상
- 대한민국 89년도 최우수작가상 수상 · 대한민국 현대서예대전 심사위원장
- 대한 국립공공박물관 소장 물품(약70만점)조사본 발표
- 고미술학회회 회장 · 한국 불교문화예술원 원장

韓國佛教文化藝術院 雲藏法師禪筆硯會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추천옥산가옥의 신비!



氣(기)는 생명력, 강한 기를 당신에게!

▲옥산가옥 특이점이 척도 10분수 척도의 분광과정이 활발하다. 연속 사용된 1.5wV 연속사용용 3.0wV로 체내전압 상승

말피파(이) 현상으로,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물질인 200여종의 뇌내모르핀 분비물 활성화시켜 모든 병을 호전시킵니다.

정혈 혈액순환, 고혈압, 당뇨, 신경통, 관절염, 두통, 불면증, 심장병, 귀울림, 치매, 신장병, 갱년기장애, 피부미용, 생리통, 요통, 스트레스, 황병, 노화방지...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잘 들립니다.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5도자기 포이불 금왕 수상 (중국 내셔널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율96.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 91.3%, 어지러움91.3%, 두통83.3%, 고혈압77.7%, 관절염60%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기록했다. (93. 2. 17 서울신문)

玉山家 옥산가옥에서 사이만 효과가 있습니다. (02)242-0331 · 242-0255 (야)216-0307

777-0105 (우원전가)